

한-케냐 인프라협력센터

주간 건설 · 인프라 동향 보고 (4월 3~4주)

□ 정책 및 시장 동향

① 케냐 주요 경제 동향

○ 주요 경제 지표

	해당년/월/주/일	전년/월/주/일	참고시점
환율(1USD)	129	130	2025.04
인플레이션(%)	3.6	3.5	2025.3월
CPI(points)	144	143	2025.3월
정부부채비율(% of GDP)	70.1	66.7	2023년말

출처:trading economics

○ 케냐 실링, KES 129 환율 안정세 유지¹⁾

- 케냐 중앙은행(CBK)의 2025년 4월 3일 기준, 케냐 실링은 미국 달러당 KES 129.25에 거래되어 주요 국제 통화 대비 안정적인 환율 유지
- 하지만 주간 보고서(4.4 기준)에 따르면, 3월 전체 인플레이션은 3.6%로 상승, 전월(2월) 3.5% 대비 소폭 증가하며 주요 원인은 가공식품 가격 상승

○ 타투시티, 서비스 요금 청구 패소²⁾

- 최근 법원은 타투시티가 Home Bridge Ltd에 청구한 KES1,000만 서비스 요금을 부당하다며 기각. 소유자협회(Property Owners Association-POA)가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, 요금 부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결.
- Florence Muchemi 판사는 계약 조건에 따라 토지 소유자로 구성된 POA만이 공용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타투시티가 POA를 설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금을 청구한 것은 계약

1) https://www.centralbank.go.ke/uploads/weekly_bulletin/1315039951_Weekly%20CBK%20Bulletin%20April%202025.pdf

2) <https://www.businessdailyafrica.com/bd/economy/tatu-city-loss-in-service-charge-row-spells-trouble-4989752>

위반이라고 지적.

- 또한 요금 계산 방식이나 공식도 Home Bridge에 제공하지 않아 요금 산정의 투명성 결여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짐
- 법원은 개발사들이 계약 준수 및 투명한 거버넌스 체계 마련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이번 판결은 타투시티 내 다른 토지 소유자들에게도 유사한 요금 부과가 제한될 수 있는 선례가 됨.

○ 케냐, 2030년 100%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- 투자 유치 본격화³⁾

- 에너지 · 석유부 장관 오피요 완다이(Opiyo Wandayi)는 2030년까지 100%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체계 구축을 목표로, 국내외 투자자 유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힘. 정부는 수입 전력 의존도 축소 및 녹색 에너지 투자 환경 조성에 전념.
- 현재 케냐 전력의 70% 이상이 지열, 수력,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서 생산, 태양광도 산업 · 주거 부문에서 빠르게 확산 중.
- 완다이 장관은 투자자 신뢰 회복 및 민간 부문 참여 확대를 위한 조치로 2023년 도입된 전력망공급계약(Power Purchase Agreement) 신규 체결 금지 조치 해제를 국회에 요청,

○ 미국, 케냐 공공입찰 투명성 문제 지적⁴⁾

- 미국은 케냐의 공공입찰 과정에서 부패와 불투명성이 만연하다고 경고, 이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
- 2025년 미국 무역추정보고서(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)은 케냐의 입찰 공고 지연 및 불명확한 정보, 국가 재무정보시스템(IFMIS) 조작 의혹, 정치적으로 연계된 현지 기업에 대한 특혜 제공을 주요 지적사항 강조
- 미국은 조달 시스템의 투명성과 케냐 정부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(Buy Kenya Build Kenya)은 외국 기업에 불리한 구조로서 개방성 개혁 촉구

3) <https://www.the-star.co.ke/business/kenya/2025-04-01-kenya-eyes-full-renewable-energy-shift-with-investor-backing>

4) <https://www.capitalfm.co.ke/business/2025/04/trump-warns-kenya-on-corruption-in-govt-tenders/>

○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에 케냐 경제에도 여파⁵⁾

-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25% 관세를 부과(25.4), 자국 제조업 보호와 중국 전기차 산업 견제를 동시에 노린 조치로 해석
- 케냐는 일본, 독일, 영국, 중국 등에서 수입한 자동차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, 글로벌 제조사들이 생산비 상승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경우 현지 차량 가격 급등 가능성 제기.
- 이번 조치는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도 광범위한 경제적 충격을 미칠 수 있다며, 국제 무역 및 공급관계로 연결된 국가들의 피해 확대를 우려.

○ 트럼프 관세 충격, 나이로비 증시도 급락⁶⁾

-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 조치 이후, 나이로비 증권거래소(NSE)는 NSE 종합지수 1.8% 하락(129.13포인트)을 기록, 1년 만에 최대 낙폭으로 집계
-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의 대량 매도로 대형주 중심(Safaricom, Equity Group, KCB Group 등)으로 시가총액 KES 337억 증발
- 국제 무역 정책의 방향성과 보복 조치 가능성이 명확해지기 전까지 시장 변동성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

○ 미국, 케냐 보건사업에 KES 440억 지원, 불안정한 의존 구조 드러나⁷⁾

- 미 대사관, KES 440억(약 USD 3억 4,400만) 보건 지원 발표 트럼프 행정부의 USAID 폐지 시도에도 불구하고, 주 나이로비 미국 대사관은 케냐 내 12개 보건·개발 기관에 KES 440억 지원을 집행.
- 이번 자금으로 HIV 치료와 결핵 검사 등 핵심 보건 서비스가 재개, 원조 중단 우려로 위협받던 사업들이 다시 운영됨.
- 하지만 케냐의 국가 보건 예산(KES 805억) 중 약 3분의 1(KES 249억이 미국 정부 지원에 의존, 보건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남.

5) https://www.singulafrica.com/prim-analys/counis/trumps-at-tariffs-a-shock-will-consume-for-kenya-487063/unred-negs-realize-us&utm_source=tanda

6) <https://www.businessdailyafrica.com/bd/markets/capital-markets/global-market-turmoil-hits-nse-after-trump-tariff-shocks-4994172>

7) <https://nation.africa/kenya/health/12-lucky-firms-get-sh44bn-despite-usaid-cash-freeze--4989556>

- 또한 USAID 폐지에 대한 법적 공방이 지속되며 향후 원조 지속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케냐 보건사업에 부담으로 작용 중

2 PPP 관련 동향

- 440km 우사히히 고속도로 2026년 착공 예정⁸⁾
 - 케냐는 나이로비-몸바사 간 440km 길이의 '우사히히 고속도로(Usahihi Expressway)'를 2026년부터 착공할 계획. Usahihi Expressway Ltd가 사업을 주도하며, 미국계 투자사 에버스트롱 캐피털(Everstrong Capital)이 주요 파트너로 참여.
 - 총 사업비 USD 35억, 국내외 자금 조달 병행, USD 10억은 케냐 내 연금기금 및 금융기관에서 조달, 나머지 USD 25억은 국제 투자자로부터 유치 예정.
 - 완공 시 나이로비-몸바사 통행시간 4.5시간으로 단축 예상
- 정부, 민간 정유사와 협력해 '저가 가스 보급 사업' 재추진⁹⁾
 - 케냐 정부는 인가된 민간 정유사(Oil Marketing Companies- OMCs)와 협력, 저소득 가구 대상 6kg LPG 실린더 960만 개 보급에 나서며, OMC가 동일 수량을 매칭 방식으로 제공해 총 1,920만 개 배포 목표
 - 2016년 시작된 Mwananchi 가스 사업, 실패 이후 재활성화 시도, 초기 사업은 비효율과 책임 부재로 실패했고, 약 14만 9,773개의 LPG 실린더가 사라지는 등 회계 부정 문제 발생.
 - 이번 사업은 OMC의 기존 유통 인프라를 활용해 더 효과적인 보급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, 등유·숯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조리 연료로 전환 유도
- KEPSA-KenInvest, 투자 활성화 협약 체결¹⁰⁾
 - 케냐 민간부문 연합(KEPSA)와 케냐 투자청(KenInvest), 투자 촉진 및

8) <https://www.infrapppworld.com/news/kenya-to-begin-construction-of-usd35-billion-expressway-ppp-project-in-2026>

9) <https://www.businessdailyafrica.com/bd/markets/commodities/state-turns-private-oil-dealer-save-failed-cheap-gas-project-4982828>

10) <https://www.capitalfm.co.ke/business/2025/04/kepsa-keninvest-partner-to-boost-investment-economic-growth/>

- 경제 성장 강화를 위한 협력 협약(Cooperation Agreement) 공식 체결
- 협력은 KPSA 시장정보 허브와 케냐 투자 원스톱 창구(Kenya Investment Single Window) 구축을 통해, 투자자 편의성 제고 및 정보 접근성 강화를 도모
 - 본 협약은 정책 및 운영상의 장애요소 해소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며,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더 나은 지원, 시장 정보,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케냐를 보다 매력적인 투자처로 포지셔닝하는 데 기여할 전망

○ 케냐, 불투명한 PPP 추진 지속으로 논란¹¹⁾

- 케냐 정부가 경쟁입찰 없이 추진되는 '비공식 제안 방식(Unsolicited Proposals)'의 PPP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 제기.
- Adani 공항 PPP 프로젝트 중단 사태에도 불구하고, 정부는 여전히 유사한 불투명한 조달 관행을 지속 중인 것으로 나타남.
-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식이 PPP 프로그램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, 국민 신뢰와 국제 투자자 신뢰를 모두 손상시킬 수 있다고 경고.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높은 수준의 사전 조사와 투명성 확보 조치 요구가 필수라고 강조

○ 모이 일가 소유 Sosian Energy, EIA 면허 취소로 사업 중단¹²⁾

- 나쿠루 고등법원은故 다니엘 아랍 모이 전 대통령 일가가 소유한 Sosian Energy Ltd에 부여된 환경영향평가(EIA) 면허를 취소, 멘엔가이(Menengai) 지열 탐사 활동을 중단 명령
- Millicent Odeny 판사는 국가환경관리청(NEMA)이 충분한 환경·사회영향평가(ESIA)를 수행하지 않았고, 사업 영향 대상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도 부족했다고 판단.
- 이번 판결은 케냐 에너지 산업에서 환경법 준수와 주민 참여 절차의 중요성이 부각된 사례로 평가됨.

11) <https://nation.africa/kenya/blogs-opinion/opinion/opaque-ppp-power-deals-afoot-4995136#story>

12) <https://nation.africa/kenya/counties/nakuru/moi-family-firm-loses-geothermal-licence--4989830#story>

○ 정부 핵심 농산업 프로젝트, 전면 지연¹³⁾

- 케냐 정부의 대표 농산업 개발 정책인 카운티 집적/ 산업단지(County Aggregation and Industrial Parks-CAIPs) 사업이 전국 최소 13개 카운티에서 중단되거나 지연
- 감사원(Auditor General)은 보고서를 통해 사업 추진의 전반적인 지연과 잠재적인 관리 부실을 지적함. 막대한 예산이 배정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단 한 곳도 완공되지 않았고, 가까운 시일 내 완공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
- 본 사태는 민관협력(PPP) 모델의 실행력과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 이행 능력에 대해 근본적인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.

○ 루토 대통령, PPP 중점 분야로 에너지·관개 선정

- 루토 대통령, PPP을 통해 에너지 및 농업 관개 분야 프로젝트를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을 발표
- Africa50가 후원하고 KETRACO(케냐 전력송전공사)가 시행할 송전망 및 변전소 건설 프로젝트가 우선 추진 대상. 이로써 에너지 보급률 개선 및 농업 생산성 향상 기대.
- 사업은 Vision 2030 및 Bottom-Up 경제전환 전략(BETA)과 일치, 공공 재원 의존도는 줄이고 민간 투자 유치를 촉진하며, 프로젝트의 신속한 실행력 확보에 중점을 둠.

③ 인프라 정책 및 동향

○ 루토 대통령, KES 11.2억 전력사업 발표

- 루토 대통령은 라이키피아 카운티 내 9,000여 가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인프라 사업에 KES 11.2억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, 전국 전력 접근성 확대 의지를 강조
- 루토 대통령은 KES 3.5억 규모의 나뉴키 현대시장(Nanyuki Modern Market)과 97% 완공된 200세대 규모의 나뉴키 서민주택 프로젝트

13) <https://www.the-star.co.ke/news/2025-04-16-county-aggregation-parks-projects-worth-billions-stall>

를 방문. 해당 주택 사업은 2024년 1월 이후 1,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에 기대 표명

- 또한, 케냐 국토·주택부에 소규모 상인과 보다보다 운전자에게 주택 우선 배정할 것을 지시하며, 추가로 1,000세대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 추가 발표.

-

○ 케냐 항만청(KPA), KES 157억 규모 몸바사항 확장 계획 발표¹⁴⁾

- KPA는 KES 157억(약 USD 1억 2,200만)을 투자해 몸바사항에 19B 신규 선석을 건설, 최대 45,000 DWT(재화중량톤)의 중형 컨테이너 선 수용을 목표
- 신규 선석은 수심 13.5m, 길이 240m 규모로 기존 컨테이너 터미널에 연결, 연간 30만 TEU(20피트 컨테이너 단위)를 추가로 처리할 수 있게 됨.
- 본 사업은 케냐 정부의 항만 인프라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동아프리카 지역 내 컨테이너 물류 중심지로서의 경쟁력 강화 기대

○ 정부, 도로 공사 재개 위해 KES 630억 부채 상환¹⁵⁾

- 케냐 정부는 KES 630억을 확보해 270개 이상의 도로 시공사에 대한 미지급금을 상환, 중단됐던 580여 건의 도로 프로젝트 재개
- 다음 주 중 추가로 KES 100억을 확보해 7월까지 전액 상환 완료 예정, 이는 정부의 인프라 사업 재개 의지와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반영
- 정부는 자금 조달을 위해 KES 1,750억 규모의 국채 발행을 계획 중이며, 이 중 80%는 해외 시장에서, 20%는 국내에서 조달 예정.
- 국채 발행은 직접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하며, 도로사업 재개는 건설·물류·공급망 분야 연쇄 투자 유발 가능성도 큼.
- 시공사들은 지연 이자 중 최대 35%를 감면하기로 합의, 정부 재정 부담 경감에 협조적 자세를 보임

○ 케냐, 신장병 전문병원 사업 지연으로 AfDB에 KES 1.19억 벌금 지급¹⁶⁾

14) [KPA eyes medium-range ships with Sh16 billion Mombasa port upgrade](#)

15) <https://www.businessdailyafrica.com/bd/economy/road-works-to-resume-after-state-clears-contractors-debt-4994150>

- 아프리카개발은행(AfDB)은 2015년 착수된 동아프리카 신장병 전문 센터(East Africa Kidney Institute)의 건설 지연에 따라 KES 1.19억의 지체벌금을 케냐 정부에 부과. 해당 사업은 KES 33.4억 대출로 2019년 완공 예정이었음.
- 2024년 6월 기준, KES 25.6억만 집행되고 KES 7.77억이 미사용된 상태였으며, 이 미집행 자금에서 ‘약정수수료(commitment charges)’가 발생, 벌금의 원인이 됨.
- 정부는 비용 초과를 충당하기 위해 KES 21.8억을 추가 차입, 이로 인해 총사업비가 KES 55억까지 증가.
- 건설 지연으로 인해, 연간 100건 이상의 신장이식 수술 수행 가능성 등 주요 의료 혜택이 미뤄지고 있음. 이는 보건 인프라 운영 차질과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.

○ 케리초 케렌가 공항 개발 본격화¹⁷⁾

- 케리초 케렌가 공항(Kericho Kerenga Airport) 개발사업 다기관 회의를 통해 부지 확보 문제를 해결, 공항 부지를 23헥타르에서 70헥타르로 확대하며 본격 추진 단계에 돌입.
- 2024/25 회계연도 예산에 사업비가 배정되었으며, 케냐공항공사(KAA)**는 1.2km 활주로로 1단계 건설 착수 후, 향후 2km까지 확장 계획.
- 본 사업은 국가 항공정책(National Aviation Policy)에 부합하며, 항공 운송망 확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전략적 기반 조성에 기여할 전망.

○ 우간다, UAE와 USD 40억 정유소 건설 계약 체결¹⁸⁾

- 우간다는 UAE의 Alpha MBM과 협력해 서부 지역에 하루 6만 배럴 처리 규모의 정유소를 건설하는 USD 40억 규모의 계약을 체결, 자국 원유 상업화에 중대한 진전을 보임.
- 정유소 가동 시, 오프쇼어 수입보다 경쟁력 있는 ex-refinery 가격(정유

16) <https://www.businessdailyafrica.com/bd/corporate/health/afdb-fines-kenya-for-delayed-kidney-hospital-project-4995218>

17) [https://www.knbs.co.ke/news/kenya/kericho-kerenga-airport-2186418#~:text=On%20period%20the%20airport%20will%20resort%20to%20Kenya%20Airports%20Authority%20\(KAA\).,text=On%20period%20the%20airport%20will%20resort%20to%20Kenya%20Airports%20Authority%20\(KAA\).](https://www.knbs.co.ke/news/kenya/kericho-kerenga-airport-2186418#~:text=On%20period%20the%20airport%20will%20resort%20to%20Kenya%20Airports%20Authority%20(KAA).,text=On%20period%20the%20airport%20will%20resort%20to%20Kenya%20Airports%20Authority%20(KAA).)

18) [Implications of Uganda refinery deal for Kenya oil infrastructure](#)

소 출고가) 제공 가능성이 커 케냐의 석유 수입 및 환적 허브 지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음.

- 이번 정유소 개발은 지역 석유 무역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도전 요소인 동시에, 우간다의 석유 산업 및 관련 인프라에 대한 투자 기회로도 해석 가능. 케냐는 기존 인프라의 개선 및 역내 에너지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에너지 경쟁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.

\

4 정치 동향

○ 케냐, 외국인 투자 최소자본 상향안 철회¹⁹⁾

- 케냐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USD 10만에서 USD 50만으로 상향하려던 계획을 철회
- 케냐 투자청(KenInvest)은 초기 자본이 크지 않은 지식·기술 기반 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기존 요건을 유지하기로 결정.
- 수정된 2023년 투자 촉진 및 편의법안(Investment Promotion and Facilitation Bill)은 산업통상부로 이관되어 내각 제출을 위한 검토 중
- 이번 조치는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외국 기업 유치, 케냐의 투자 매력도와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전략적 조정으로 평가됨

19) <https://www.businessdailyafrica.com/bd/economy/kenya-backtracks-plan-to-raise-minimum-capital-for-foreigners-4995330>

□ 일반 프로젝트 동향 및 센터 운영 현황 보고

① 일반 프로젝트 동향

① 35MW Orpower 22 Geothermal Power Plant Project²⁰⁾

< 사업 개요 >

- (발 주 처) Geothermal Development Company (GDC)
- (도 급 사) Kaishan Group Co.Ltd
- (사 업 비) USD 90 million
- (편 당) Kaishan Group Co.Ltd
- (사업내용)
 - 위치: 나쿠루 카운티, 멘엥가이 지열지대(Menengai geothermal field)
 - 규모: 35메가와트(MW) 발전용량의 그린필드 지열 발전소 신설
 - 기간: 2023년~2026년 중반 (실제 건설 기간 약 17개월 예상, 2024년 10월 착공 기준)
 - 계약 기간: 25년간 운영
- (추진현황)
 - Kaishan Group Co. Ltd.의 100% 민간 투자
 - 2023년 12월, Aqua Power 및 Symbion Power LLC로부터 프로젝트 인수, 인수 당시, 허가 및 계약 확보 등 사전 개발 작업은 완료된 상태
 - 2024년 10월 24일: 윌리엄 루토 대통령 주재 하에 착공식 거행
 - 2026년 중반 완공 목표, 케냐의 재생에너지 전환 및 전력망 안정성 강화에 기여 예정

- (주요상황) Orpower 22 발전소는 케냐의 2030년 100% 청정 전력망 구축 목표에 기여. 완공 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, 기후 회복력 (climate resilience) 강화,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견인, 지열 분야에 서 글로벌 5위권 국가 도약 목표로 민간 부문 투자 유치 역량 강화 및 제도적 여건 개선 사례로 주목

20) https://pppkenya.go.ke/ova_por/35mw-orpower-22-geothermal-power-plant-project/

② 15,000MT Liquefied Petroleum Gas (LPG) Terminal Project²¹⁾

< 사업 개요 >

- (발 주 처) Focus Container Freight Station (FCFS)
- (도 급 사) 미공개
- (사 업 비) USD 43 milion
- (편 당) FCFS
- (사업내용)
 - 몸바사 카운티 창감웨(Changamwe) 지역에 15,000 메트릭톤(MT) 규모의 액화석유가스(LPG) 터미널을 건설
 - 2018년 최초 제안 당시 용량은 30,000MT였으나, 안전성 문제 제기로 인해 설계가 수정됨. 현재는 몸바사항 인접 5에이커 부지로 이전하고, 용량도 절반으로 축소.
 - 본 터미널은 항만 인근 LPG 취급 및 저장 능력을 강화하여, 조리용 가스 수입의 중앙 집중화를 목표로 함
- (추진현황)
 - 2018년: 프로젝트 최초 제안, 저장 용량 30,000MT 규모로 시작.
 - 2019년: 초기 인허가 취득 하지만 차아니(Chaani) 정착촌과의 근접성으로 인한 안전성 우려 제기됨.
 - 2023년: 몸바사항 인접한 더 안전한 부지로 이전, 저장 용량도 15,000MT로 축소 조정.
 - 2024년 12월: 공청회 및 주민 참여 절차 실시창감웨 지역 주민 및 시민단체의 지지 확보.

- (주요상황) FCFS Ltd, 몸바사 창감웨(Changamwe) 지역 5에이커 부지에 대형 LPG 저장소 건설을 제안, 이는 Dongo Kundu 경제특구에 45,000MT 시설을 건설 중인 Taifa Gas Ltd. 등 기존 사업자와의 경쟁 구도 형성을 의미. 국가환경관리청(NEMA)는 환경관리조정법(EMCA) 1999 제59조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(EIA Study Report)를 공식 접수.

21) https://nema.go.ke/images/Docs/EIA_2310_2319/EIA%202318%20SR%202927%20FOCUS%20CONTAINER%20FREIGHT%20LIMITED-min.pdf

③ Isiolo International Airport Expansion Project²²⁾

< 사업 개요 >

- (발 주 처) Kenya Airports Authority (KAA)
- (도 급 사) Northern Construction Company
- (사 업 비) KES 2.7 billion
- (편 당) Government of Kenya
- (사업내용)
 - LAPSET Corridor(라무-남수단-에티오피아 회랑) 내 핵심 물류 거점 역할 기대, 북부 케냐 및 인근 지역의 무역·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.
 - 활주로 연장: 1.4km → 2.5km로 확장, 대형 항공기 이착륙 가능
 - 여객터미널 건설: 4,500m² 규모, 연간 최대 12.5만명 수용 가능
 - 부속 인프라 개발: 유도로(taxiways), 관제탑(control tower), 화물 터미널 및 격납고(hangar), 직원 숙소, 소방서, 주차장, 울타리 등
- (추진현황)
 - 2011년: 프로젝트 착수, 무와이 키바키(Mwai Kibaki) 대통령 주재로 착공식 진행.
 - 2012년 7월: 1.4km 활주로 및 기초 인프라 완공, 초기 건설 작업 마무리.
 - 2013년: 2.5km 활주로 확장 및 부대시설 추가 건설 착수, 공항 규모 확대 위한 2단계 개발 착공.
 - 2017년 7월: 우후루 케냐타(Uhuru Kenyatta) 대통령 주관으로 공식 개항, 국내선 일부 노선 운항 시작.
 - 2017-2022년: 운영 및 인프라 제약으로 공항 활용도 저조, 상업적 운항 및 물류 기능 제한적 운영에 머물.
 - 2023년: 대형 항공기 수용 및 화물 처리 확대를 위한 활주로 재확장 논의 진행 중, 공항 기능 활성화를 위한 추가 투자 및 업그레이드 계획 마련 중.

- (주요상황) 이시올로 국제공항은 전략적 입지와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활주로 한계, 야간 운항 불가, 홍보 부족 등으로 전면 운영에 실패. 케냐 정부는 카운티 당국과 협력하여 활주로 연장, 부대 시설 개선, 항공사 및 화물 운송사 유치 등 운영 정상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중

22) <https://www.nepadaprmkenya.go.ke/monitoring-of-the-isiolo-international-airport/>